

입찰 경쟁률 최고 107대 1... 땅에 몰리는 돈

LH 빗그린산단 점포 겸용·단독주택용지 청약 1749명 낙찰률, 공급가의 175% ... 수도권 투기 수요 가능성도

아파트 뿐 아니라 땅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산업단지 내 땅에도 별따처럼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100대 1이 넘는 입찰경쟁률이 나오는가 하면, 낙찰가가 예정가의 200%가 넘는 정도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빗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2필지(3만2458㎡)에 대한 청약에 모두 1749명이 참여하면서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필지(331㎡·공급예정가 8956만원)에 107명이 청약하는가 하면, 낙찰가가 공급예정가의 200%가 넘는 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낙찰률이 공급예정가의 175%에 달했고 공급 토지 전체가 팔렸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층을 상가로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외의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입찰가의 5%를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2년 이내에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는데, 토지개발, 건축, 산단 내 공장 입주 등이 이뤄져야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오랜 기간 금융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 토지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LH가 지난 2016년 4월 효천 1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한 이후 2년

여만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인데다, 택지개발지구(3.3㎡당 300만원 수준)보다 공급가격이 60% 가량 저렴한 점,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도 참여가 가능해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

제가 덜하고 가격이 저렴한 지방 토지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공급예정가격의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빗그린 산단이 광주시 핵심 현안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광주형 일자리'를 우선 적용하는 산업단지라는 점, 현대차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점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빗그린 산단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생산기지 집적화단지로 조성될 예정

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밸리, 광주첨단산단 등과 인접하고 광주공항, 무안공항과도 가까워 미래 신성장 동력의 중추 산업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오는 12월 예정된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는 빗그린산단 지원시설 용지, 내년 상반기 예정된 근린생활용지 공급에서도 투자자가 몰릴 지 주목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원 낙과피해 과수원 복구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종신)은 지난 29일 태풍과 폭우로 낙과피해를 입은 순천 배 재배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7.35 (-1.68)	↑ 금리(국고채 3년) 1.98 (+0.03)
↑ 코스닥 804.47 (+1.29)	↓ 환율(USD) 1108.60 (-1.60)



광주은행 中 추석자금 3천억원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추석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 중 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1.5%를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안을 살피 민생안정의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발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현대차도 채용문 '활짝'

신입·인턴 내달 10일까지 원서접수

현대차는 30일부터 2018년 하반기 신입 사원과 인턴사원 채용에 들어갔다. 신입사원 정공채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 R&D(연구·개발) ▲ 제조(Manufacturing) ▲ 전라지역 ▲ 소프트웨어(S/W) 등 4개 부문에서 실시된다. 지원서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서류 전형 합격자는 10월 중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 인적성 검사(HMAT)를 치르고 전형 통과자에 대한 면접과 채용 검진 등을 통해 입사가 확정된다. 1차 면접은 핵심역량 면접, 직무역량면접으로 구성되고, 2차 면접에서는 종합면접, 영어면접이 진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제주항공 전국 대학서 채용설명회

광주·전남 내달 10일 초당대·11일 전남대·12일 광주여대

제주항공이 하반기 공개채용을 앞두고 전국 대학을 돌며 채용 설명회를 연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 제주, 부산, 청주 등 취항지역을 중심으로 객실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에 대한 채용설명회를 실시한다. 다음달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리는 항공산업취업박람회와 제주대

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수도권, 청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초당대(10일) ▲전남대(11일) ▲광주여대(12일) 등에서 진행되며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정비사·운항관리사 등도 참여해 채용 인제상, 입사 준비 과정, 후배들에 대한 조언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 1인가구 66.9%가 여성

광주는 54%...광주·전남 여성 1인가구 절반이 70세 이상

광주·전남 전체가구의 33.6%가 여성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는 광주·전남 모두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발표한 '2018년 통계로 보는 광주·전남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가구(57만9000가구)의 34.1%(19만8000가구), 전남 전체 가구(73만8000가구)의 33.1%(24만4000가구)가 여성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광주의 경우 35.1%(2020년)→38.4%(2030년)로, 전남도 33.8%(2020년)→36.1%(2030년)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현재 광주 여성 인구는 75만2000

명으로 남성보다 4700명 많고 전남은 89만4000명으로 남성보다 7000명 적다.

올해 광주지역 여성 1인 가구는 8만8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16만3000가구)의 54.0%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인 가구(21만9000가구)의 66.9%인 14만7000 가구가 여성 가구였다.

광주·전남 여성 1인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만9874가구(46.8%)는 70세 이상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광주 30.3세·전남 29.8세이고, 평균 재혼연령은 광주 44.3세·전남 44.6세이다. 여성 고용률은 광주가 50.3%(2017년 기준)로 2000년 이후 첫 50%를 돌파했으며 전남은 53.3%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전, 아파트 정전예방 강화

노후 변압기 교체·설비 무상임대 확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아파트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정전예방 종합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변압기 가격의 약 50%를 지원하는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에 12억 원의 긴급예산을 추가 편성해 올해 초 계획보다 100여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노후변압기 교체 예산을 올해보다 더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변압기를 비롯한 한전 임시공급설비를 무상임대해 용량부족 때문에 저녁시간에 냉방기기 사용을 제한 해야했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콜센터 고장접수를 실시간 공유하고 사고

현장에 동시 출동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었다. 따라서 정전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출동, 원인파악 등 일련의 수리과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홈페이지에 전력기자재와 복구업체 최신 현황을 제공해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정전 발생 시 긴급수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아파트 정전건수는 전년 동기 73건에서 153건으로 110% 늘어났다.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 정전발생률이 15년 미만인 경우보다 7.4배 높고, 특히 변압기로 인한 정전 건수 총 153건 중 117건으로 76.5%에 달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